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1. 22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뉴시스 https://zrr.kr/hZiFOT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LTV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회피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제재,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관련 매출액은 각 은행이 담보대출로 얻은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한 6.8조원으로,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으며, 하나 869억, 국민 697억, 신한 638억, 우리 515억 등의 과징금 부과

금융위 "생산적 금융, 숫자 넘어 KPI로 관리해야"

매일경제 https://zrr.kr/7yXMJy

금융위는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열고 앞으로 협의체를 매달 개최해 금융회사들의 생산적 금융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혀
또한 생산적 금융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 등 보상체계를 마련해 관리할 것을 금융권에 주문

지방기업·사업자 대출 확대... 금융위, 은행 예대율 완화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JBfiWw

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며 은행권의 대출여력은 2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
현재 은행권은 예대율 산정시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80%, 95%로 조정

국민은행, 담보보다 성장성…'생산적금융' 대세 속 기업여신 재편

블로터 https://zrr.kr/e3HKaG

KB국민은행이 정부 주도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기업여신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차 검토
자체 산업 분류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대출 심사와 KPI에 적용… 첨단전략, 일반성장, 안정성장, 전환관리산업 등으로 세분화해 산업별 성장 단계와 정책적 중요도를 함께 반영

작년 ELS 발행금액 69조… 증시 훈풍에 25% 증가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3iPW2Q

지난해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포함한 주가연계증권(ELS) 발행금액이 전년 55조2700억원 대비 25.5% 증가한 69조3625억원으로 집계
S&P500과 EURO STOXX 50을 포함하는 ELS는 각각 16조3943억원, 14조3044억원 발행됐고, 코스피200을 포함하는 ELS는 23조2690억원 발행

증권가, 3년간 22.5조 '모험자본' 푼다…대형사 7곳 참여

디지털투데이 https://zrr.kr/eqL8Ri

생산적 금융을 위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7대 대형 증권사는 향후 3년간 22조5000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조달을 책임
한국투자증권은 'IMA' 업무와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두 축으로, KB증권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기존 채권·대출(신용공여)에서 '지분투자(Equity)'로 대폭 옮길 예정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6%대…6년래 최고

데일리안 https://zrr.kr/aFPbY7

지난해 12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6%대를 기록하며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연말 계절적 요인에 더해 보험료 인하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물적담보 손해액 증가가 겹치며 손익 부담이 크게 확대된 모습

설계사 4대보험 추진 탄력…보험사 수조원대 비용 지출 현실화

보험매일 https://zrr.kr/zJ55YQ

정부가 5월을 목표로 노동자추정제와 특수고용직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면서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고직의 4대보험 편입 가능성 확대
설계사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사와 GA의 비용 부담이 급증해 연간 총 부담액이 2조 원 안팎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

美 '클래리티 액트' 공개 임박…6.6조달러 예금 이탈론 변수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UXaXn5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최종안을 공개할 전망
미국은행협회(ABA)가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라 최대 6조6000억달러 규모 예금 이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심의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진 상태

비트코인 폭락에도…스토리(IP) 코인, 나홀로 두 자릿수 급등세

한국경제 https://zrr.kr/IRvq5e

트럼프 대통령발 '그린란드 관세'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가상자산 시장도 일제히 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블록체인 지식재산권 프로젝트 '스토리(IP)'가 급등세
IP 토큰은 예외적인 상승 흐름에 대해 시장에서는 최근 제출된 신규 개선 제안(SIP)이 스토리의 네트워크 안정성과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를 키운 점 등을 상승 배경으로 생각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